

#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고려 양상\*

김명순\*\*

## <차 례>

- I. 서론
- II. 국어과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
- III. 국어과 통합 교육의 대상과 범위
- IV. 결론

## I. 서론

최근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11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교육과정이 최종 고시되기까지 네 차례의 토론회(공청회)와 한 차례의 심의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절충되는 등의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일부는 무성한 논란을 잠재워 둔 채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잠정 봉합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합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할 당시부터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속칭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국어교육계에 초래한 가장 큰 변화라면 영역[과목]의 통합이라고 할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수 있다. 당시 영역 통합이 예상 밖의 키다란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외적 명분을 앞세운 정책적 요구가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합에 대한 국어교육계 내부의 논의가 탄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탄생은 결과적으로 국어교육계에 국어과 통합 교육<sup>1)</sup>이라는 큰 과제를 던지고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기도 전에 또 한 차례 교육과정 개정의 화살을 맞고 말았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개발이 연이어 시작된 것이다. 아직 국어교육계 내부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다시 한번 정책적 요구를 수용하기 바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영역 통합 문제도 별다른 진전 없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상태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취한 모양새가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이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취했던 모습 그대로이다.

이제 2011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새 교육과정의 출범이 주는 여유는 그간 잠시 보류해 두었던 현안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어과 영역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고에서 국어과 통합 문제를 살피게 된 까닭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육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통합 교

1) 교육(education)과 지도(instruction)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교육은 기르는 일로서 가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지도는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방법적 차원의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통합 교육’을 ‘통합 지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통합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방법적 차원에 초점이 있거나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도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한편, 통합 교육은 교육 일반적으로 장애 학생을 일반 학생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교실에서 함께 지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을 합쳐 접근하는 경우와 관련지어 사용하기로 한다.

육이 도입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기이다. 그러나 통합 교육에 대한 정신은 미국의 진보주의의 교육사조가 도입된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1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에 드러난 국어과 통합 교육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통합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를 살피게 되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야를 얻기 쉽다고 한다. 지금이 국어과 영역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한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그간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통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살펴서 포괄적인 시야를 확보해 두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II. 국어과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

### 1. 국어과 교육 일반

그동안 국어과 교육 일반적으로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국어과 교육의 내부 논리에 의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때로는 국어과 교육 외부의 일반 논리나 현실 여건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도 달랐다. 그 주요 논의를 간추려 살펴보기로 하자.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거는 언어 사용의 실제이다. 1980년대 이후 통합 교육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데에는 구미로부터 소개된 총체언어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 운동은 1980년대 중반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언어 교육 운동으로서 언어 기능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총체언어운동은 읽기, 쓰기 등으로 나누어진 언어 기능의 분리를 종식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

다(Tchudi & Mitchell, 1999 : 67-71)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 총체언어운동이 통합을 강조한 주요 근거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실제상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언어 사용 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국어교육계에서도 통합 교육을 주장하는 근거로 흔히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이들 언어 각 기능은 여러 모로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도해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럽다.”(신현재 · 이재승, 1994 : 17)라고 하거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당시 국어과 선택과목 통합에 대하여 “국어가 총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어의 특성이 부분적으로만 교수 학습되어 온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관규, 2009 : 21)이라고 한 경우가 그러하다.

학습은 언어에 의존한다. 그래서 언어 없는 학습은 상상하기 힘든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수학, 과학, 사회 등 다른 모든 교과의 학습에 쓰인다. 언어는 학습의 도구이고, 학습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도구이다. 이러한 언어의 도구성은 일찍부터 일반 교과에서 언어 교과와의 통합을 제안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비단 일반 교과만이 아니다. 언어의 도구성은 언어 교과 쪽에서도 일반 교과와의 통합을 고려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도구가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사용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언어가 학습과 사고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고가 전개되는 장이 필요하다. 언어 교과 입장에서는 언어 기능이 사용되는 장으로서 일반 교과와의 통합을 고려해 보게 되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이 국어과 통합 교육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나 2011 개정 교육과정이 국어과 선택과목의 통합을 내세우면서 취한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밝힌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2009. 08. 17)에 따르면,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이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습을 저해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과행적으로 운영됨을 지적하고 …… ”라는 현실 진단이 나온다. 이는 결국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선택과목 통합<sup>2)</sup>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2011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확정 · 발표’(2011. 01. 2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중복된 과목, 이수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과목은 축소, 폐지, 통합 등으로 조정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국어과가 여러 과목으로 세분화되거나 중복되어 있고 과목에 따라 이수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방침은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진이 ‘주요 연구 내용’ 중 ‘연구내용1’의 첫 번째 항목을 “기존 영역의 통합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 방안”(2011 개정 교육과정 개발팀, 2011 : 1)으로 설정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한편, 유기체의 생물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통합 교육을 주장하기도 한다.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교육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은 뇌의 작동 체계상 출생 때부터 통합을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인간의 뇌가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관을 짓고 일정한 패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져 있어서(Caine & Caine, 1991 : Frazee & Rudnitski, 1995 : 134 재인) 개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상호 연결하여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도 뇌의 작동 체계에 맞추어 다른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접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도 뇌의 작용에 맞게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학습자의 발달심리적 특성으로부터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4차 교육과정이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교과 통합이 시도되고 통합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보이는 발달상의 미숙함이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통합적 학습지도를 강조하면서 특히 학습자의 발달심리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영만, 2001 : 217)라거나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아직 사고의 미분화 단계에 있으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젖게 되며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과제와 활동은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

2) 사실 이때의 통합은 교과목 편제상의 통합일 뿐 실질적인 통합이라고 하기 어렵다. 기존하던 6개 선택과목을 단순 짹짓기하여 과목명만 하나로 연결하고 내용은 독립적으로 병렬시켜 놓았다. 외형상 통합의 제스처를 취한 감이 있다.

이다.”(함종규, 2003 : 512)라는 당시 논의를 통해 잘 드러난다.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학교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학교에서는 시간이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합 교육이 설득력을 얻곤 한다. 이런 경우 통합 교육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내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다. 통합적으로 지도하면 수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중복 지도도 피하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논설문 읽기와 논설문 쓰기는 공통된 지도 내용이 많다. 그래서 양자를 통합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통된 내용이 많으므로 양자를 통합하여 지도하면 시간도 줄이고 중복 지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전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칸막이식 교육이 지적될 때가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세계를 종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는 교과별로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얻는 교육적 경험 사이에 통합성이 부족하면 세계를 단편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 밖 실세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칸막이식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자연스레 칸막이를 없애는 통합 교육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왔다. 이와 같은 경우에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근거는 실세계에 대한 대응력 신장에 있다. 미국 교육의 대부라 불리는 듀이가 일찍이 교과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제시한 주요 근거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나 경험이 본래 학제간 성격을 지닌다는 점(Dewey, 1933, 1938 : Frazee & Rudnitski, 1995 : 134)이었다. 유일한 교과목은 생활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화이트헤드가 던진 물음은 여러 교과목의 나열이 과연 삶을 대표할 수 있는가(Whitehead, 1929 : 18 : Caine & Caine, 1991 : 134 재인용)라는 것이었다. 한때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여 우리 교육계에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기존의 칸막이 교육을 타파할 통합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학생들의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

의 퇴화,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 진단(박태건, 2006 : 5, 30, 33)이 있었다.

이상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어 온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는 크게 국어과 특수적 성격을 지니는 것과 교과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국어과 특수적 성격을 지니는 논의로는 언어 사용의 실제, 언어의 도구성,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교과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논의로는 유기체의 생물적 특성, 학습자의 발달심리적 특성, 학습의 효율성, 교육의 실세계 대응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속한다. 국어과 특수적 성격의 논의는 다시 국어과 교육의 본질적 측면과 비본질적 측면의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사용의 실제나 언어의 도구성을 근거로 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는 국어과 교육 본질적 측면의 논의라 할 수 있고,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을 근거로 하여 통합 교육을 주장하는 경우는 비본질적 측면의 논의라 할 수 있다.

## 2. 국어과 교육과정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기로 하자.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을 부인하거나 부정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통합 교육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쪽에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 교육과정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1차 교육과정과 이를 큰 변화 없이 이은 2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가 교육과정 문면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3차 교육과정에서도 앞선 교육과정의 관점을 잇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오면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가 다시 명시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가)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언어 생활을 말하기, 듣기, 쓰기(글짓기), 읽기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음성으로서의 그것과 문자로서의 그것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표현하는 면과 이해하는 면으로 갈라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렇게 분류한 것이지 실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엄연히 분리된 상태의 것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점은 국어 교육을 생각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국어 교육에서는 그러한 분류가 엄격히 적용되어, 강독, 작문, 문법 등의 과목을 따로 정하여 지도하여 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육법에도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다룬다고 하였을 뿐, 그 이상 언어 활동을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언어 생활의 실태에 입각한 것으로, 모든 언어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sup> (1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1. 우리 나라의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중)

(가)는 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가)를 보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따로 가르치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들 언어 활동을 ‘과목을 따로 정하여 지도하여’ 온 것을 재고하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통합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근거는 ‘실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엄연히 분리된 상태의 것이 아님’, 곧 ‘우리의 언어 생활의 실태’에 있다. 실제의 언어 생활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어과 교육과정 출발 당시부터 언어의 총체성이 인식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1차 교육과정에는 (가)에 이어, 언어와 문학으로 나누는 것도 학습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과목을 따로 하여 지도되어야 한다는

3) 표기와 띠어쓰기 등은 당시 그대로임. 밑줄은 필자가 그었음. 이하 인용에서도 마찬가지임.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나온다. 그리고 “따라서 말하기, 듣기, 쓰기(글짓기), 읽기는 학생들의 국어과 학습 활동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비록 문학에 관한 단원을 학습할 때라도 그것을 읽기만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원의 학습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글짓기), 읽기가 다 같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기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4)</sup>라고 하여 통합 교육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

이러한 언어 생활을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음성으로서의 그것과 문자로서의 그것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표현하는 면과 이해하는 면으로 갈라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글짓기)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렇게 분류한 것이지 실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엄연히 분리된 상태의 것이 아님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러한 분류가 엄격히 적용되어 강독, 작문, 문법 등의 과목을 따로 정하여 지도하여 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1.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중)

(나)는 2차 교육과정의 한 대목이다. (나)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영역을 구분하고 별도로 과목을 정해 나누어 지도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실제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찾고 있다. 문제 진단과 근거 제시가 (가)의 1차 교육 과정과 동일하다.

(가)와 (나)를 살펴볼 때, 국어과 교육의 신생기 교육과정인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 a. 말하기, 듣기는 편의상 그 목표와 내용에서 분리하여 서술하였으나,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같은 과정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감안

4) 이 진술은 2차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하여 적절히 지도한다. (3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

- b. 말하기와 듣기는 편의상 구분하였으나, 실제의 지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3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

(다)는 3차 교육과정에서 통합 지도를 안내해 놓은 부분이다. (다)가 말하기와 듣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통합 지도에 대한 근거를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찾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a에는 말하기와 듣기는 서술을 분리하였지만 지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말하기와 듣기가 ‘같은 과정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이는 말하기와 듣기의 실제를 주시한 것이다. (다)b에서는 말하기와 듣기의 구분이 ‘편의상 구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또한 실제상의 말하기와 듣기를 주목할 때 가능한 진술이다. (다)에서 보듯이 3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한 명시적 진술이 말하기와 듣기의 두 영역으로 좁혀져 있다. 그러나 통합 교육의 근거는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찾고 있어 1차, 2차 교육과정에서 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1)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 (2)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 (3)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 ‘4. 교수·학습 방법’ 중)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가 매우 상세화된다. (라)가 이점을 보여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과목으로 국어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과목이다. 여기서 교수·학습 계획을 크게 세 덩이로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라)이다.<sup>5)</sup> (라)의 도입 진술을 보면, 통합 지도의 필요성이 기정화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통합의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국어 활동의 총체성’에서 찾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총체성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하나(whole)를 이룬다는 것으로 이들 언어 활동이 실제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실제상에서 언어 활동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라)의 관점은 (가)(나)(다)의 관점과 상통한다.

(라)의 총괄 진술을 지나 가항과 나항을 살피면, 통합 지도의 또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학습의 효율성’이다. 가)는 국어과 교육에서 통합이 무제한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국어과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는 해당 영역에서 고유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해서 통합 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통합 교육은 통합이 가능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학습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통합 교육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지 않으면 통합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가)의 세부 진술 (1), (2), (3)에 이르면 통합의 근거가 다방면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에 명시된 통합의 근거는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이다. 언어를 처리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과정은 표

5) 나머지 두 덩이는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와 관련된다.

현과 이해로 대별된다. 그래서 같은 표현 과정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쓰기가 통합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이해 과정인 듣기와 읽기가 통합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2)에 나타난 통합의 근거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이다. 즉 매체에 따른 통합 방식이 고려되었다. 듣기와 말하기는 음성 언어라는 같은 매체를 사용하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통합의 대상이 되어 있다. (3)은 문법 및 문학 영역과 언어 사용 영역의 통합이 언급되어 있다. 문법이나 문학에 대한 담화나 글을 읽거나 들으면 읽기나 듣기와의 통합이 되고, 문법이나 문학을 학습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게 하면 쓰기나 말하기와의 통합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문법이나 문학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기 마련인 언어 활동에 해당한다.<sup>6)</sup> 이 경우 통합의 근거는 언어 기능이 지닌 도구성에 있다. 문법이나 문학 학습에 언어가 학습과 사고의 도구로서 쓰인 것이다.

(라)를 통해 볼 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가 상세화되고, 다방면에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어과 통합 교육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총체성으로 대변되는 언어 사용의 실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 학습의 효율성, 인지 과정, 사용 매체, 언어의 도구성도 통합 교육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마)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영역 간, 영역 내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6) 문법이나 문학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습에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학습 목표와 학습 목표 사이에 공통 학습 요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면 통합 지도라고 하기 곤란하다(김명순, 2004 ; 천경록, 2009).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국어 I》 《국어 II》 ‘5. 교수·학습 방법’ 중)

(마)는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언급이다. (마)는 (라)와 대동소이하다. (마)에는 (라)에 있던 세부 사항 (1)~(3)이 사라졌지만 그 상위 항목들은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마)는 (라)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라)와 마찬가지로 (마)에서도 언어 사용의 총체성이 국어과의 통합 지도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쓰였다. 그리고 학습의 효율성 측면도 통합 교육의 근거로 쓰였다. 이렇게 볼 때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전 교육과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과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국어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논의된 바를 살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통합 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과 근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총체성을 고려한 언어 사용의 실제에 주목하여 국어과 교육의 통합 교육을 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 신생기 교육과정인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언어 사용의 분리 불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정신은 근래의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에서 언어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근간하여 국어과 통합 교육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인지 과정, 사용 매체, 언어의 도구성을 근거로 하여 통합 교육의 필요를 말하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근래의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다.

### III. 국어과 통합 교육의 대상과 범위

통합은 국어과를 기준으로 하여 국어과 외 통합과 국어과 내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어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가리키므로 교과 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다시 국어과의 영역을 기준으로 영역 간 통합과 영역 내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 1. 교과 간 통합

다음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와 다른 교과의 통합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바)

- a. 국어과의 지도 내용은 국어 학습 지도의 실제 장면과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에 학습지도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국어 시간의 학습 지도 2. 다른 교과에서의 국어 학습 지도 3. 특별 활동에서의 국어 학습 지도 4. 생활 지도로서의 국어 학습 지도 5. 생활 단원으로서의 국어 학습 지도 6. 기초 학습 특별 시간으로서의 국어 학습 지도 (1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二. 국민학교 국어과의 영역’ ; 2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III. 지도내용’ 중)
- b. 국어 교육은 절대로 고립된 상태로 전개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교과의 학습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 교사는 다른 교과의 교사들의 협력을 얻어 국어 교육의 성과를 더욱 확실한 것이 되게 하는 한 편,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교과의 학습에서든지 국어과에서 학습한 언어 사용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어 교사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1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1. 우리 나라의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 2차<sup>7)</sup>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I. 목표 1. 교육 목적과 국어 교육’ 중)

- c. 국어과의 지도는 국어 시간 및 기타 모든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에  
서 지도하여 그 실효를 거두도록 할 것. (2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IV. 지도상의 유의점’; 2차 고등학교<sup>8)</sup> 교육과정 『국어 I』 ‘3. 지도  
상의 유의점’ 중)
- d. 국어 교육은 국어과의 교육 활동뿐 아니라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어과는 어린이<sup>9)</sup>의 언어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바  
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교과 및 특별 활동과 유기적으로<sup>10)</sup> 관련  
지어 국어 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한다. (3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상의 유의점’; 3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  
어』 ‘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

(바)를 보면, 국어과와 다른 교과의 통합 지도에 대한 언급이 주로 초창기 국어과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바)a는 초등학교에서 국어 학습 지도 장면을 몇 개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 ‘다른 교과에 서의 국어 학습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어과 학습의 범교과적 도구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의 교육 과정은 타 교과에서 고립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과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11)</sup>라는 관련 설명에는 기초 과목으로서 국어과의 범교과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국어과의 범교과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교과와의 통합 지도를 강조하기는 중학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바)b는 국어 교사가

7) 2차 교육과정은 마지막 문장 말미에 내용이 덧붙은 점 외에는 1차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2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문장 말미는 “~국어 교사의 임무가 있고, 국어과의 기초 학과로서의 특질도 있는 것이다.”이다.

8) 고등학교의 해당 구절도 중학교와 대동소이하다. 고등학교의 해당 구절은 “국어과의 지도는, 국어 시간 및 기타 모든 교과 활동과 교과 외의 활동에서 지도하여, 국어 I 이 목표하는 기초적 실효를 거두도록 한다.”이다.

9) 초등학교는 ‘어린이’, 중학교는 ‘중학생’으로 되어 있다.

10) 이 부분부터 중학교에서는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국어 학습의 기본 사항을 다루며, 나아가 이들 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11) 1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一. 국민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 2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I. 목표’

다른 교과의 교사와 협력을 주고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국어 교육은 절대로 고립된 상태로 전개될 수 없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국어 교육의 범교과적 관련성을 짚은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에서 학습하는 것이 ‘언어 사용의 능력’이지만, 이 능력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서 발휘, 즉 사용되어야 함을 ‘국어 교사의 임무’라고 할 만큼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언어 사용 능력이 학습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바)c는 국어과의 지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이나 기타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국어과의 지도가 국어 시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 교과 외 활동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통합의 범위가 교과와 교과뿐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로까지 확장됨을 의미한다. (바)c는 국어과 통합 교육의 범위를 학교 활동 전반적으로 넓혀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는 (바)a에서 국어 학습 지도가 특별 활동에서의 국어 학습, 생활 지도로서의 국어 학습, 생활 단원으로서의 국어 학습, 기초 학습 특별 시간으로서의 국어 학습으로 접근해 있는 점과 상통한다.

(바)d는 국가 수립과 전후의 어수선함이 가라앉고 국가 전반적으로 쇄신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3차 교육과정의 관련 진술이다. (바)d의 입장은 국어과의 학습을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국어과의 학습이 다른 교과는 물론이고 ‘특별 활동’의 비교과 활동으로도 확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바)a~c와 같다. 이로써 3차 교육과정의 기본 입장도 1차 교육과정 및 2차 교육과정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바)a~c를 통해 볼 때, 1차, 2차, 3차의 초창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한 기본 정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 비교과 활동과의 통합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같다. 초창기 교육과정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은 국어과의 성격을 ‘절대로 고립된 상태로 전개될 수 없는 것’,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 점과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국어과 교육과정

에서는 국어과와 다른 교과의 통합 교육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과의 성격을 범교과적 도구 교과로 파악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4차 교육과정에 오면 국어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 교육에 대한 언급이 교육과정 문면에서 사라진다. 국어과와 다른 교과, 국어과와 비교과 활동의 통합에 대한 진술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국어과 내의 영역별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진술이 등장한다. 이제 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가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 2. 영역 간 통합

국어과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지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 사이의 통합과 개별 영역 내의 통합이 있다.

(사)

- a. 국어과는 그 영역을 ‘표현 · 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표현 · 이해’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인 지식<sup>12)</sup>을, ‘문학’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초보적인 지식<sup>13)</sup>을 지도하되 상호 관련되도록 한다. (4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4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I》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중)
- b. 국어과 교육 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와 국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sup>14)</sup>을, ‘문학’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그리고 이에 필요하다고

12) 초등학교는 ‘초보적인 지식’, 중학교는 ‘기초적인 지식’, 고등학교는 ‘지식’으로 되어 있음.

13) 위와 동일함.

생각되는 기초적인 문학 지식<sup>14)</sup>을 다루되, 위의 여섯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sup>15)</sup>한다. (5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 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중)

- c.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 및 학년별 내용, 학생들의 성취 수준, 학생들의 요구 및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한다. (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4. 방법’ ; 6차 중학교 교육과정 『국어』 ‘4. 방법’ ;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4. 방법’ 중)
- d.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3. 내용’,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7차 교육과정 『국어』 ‘4. 방법’ 중)
- e.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 ‘4. 교수·학습 방법’ ;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 ‘5. 교수·학습 방법’ 중)
- f. 영역 간, 영역 내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국어』 ‘5. 교수·학습 방법’ 중)
- g. 화법과 작문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는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과목과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5. 교수·학습 방법’ 중)

14) 중학교는 ‘기초적인 지식’,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되어 있음.

15) 중학교는 ‘기초적인 문학 지식’,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문학 지식’으로 되어 있음

16)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 지도하되, 국어 사용 기능을 지도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중점을 둔다.”가 그것이다.

h. 독서와 문법의 연계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는 ‘화법과 작문’, ‘문학’, ‘고전’ 과목과의 통합적 지도를 강조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5. 교수·학습 방법’ 중)

(사)는 국어과 내에서 영역과 영역 사이에 고려될 수 있는 통합과 관련되는 진술이다. 영역 간 통합은 영역이 다른 교육 내용들 사이의 통합을 말한다. 이를테면, ‘시대적·사회적 배경,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며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sup>17)</sup>는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과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sup>18)</sup>는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을 뮤어서 지도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sup>19)</sup>는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까지 뮤어서 지도할 수 있다. 이럴 때 통합은 읽기와 문법의 영역 간 통합, 또는 읽기와 문법과 문학의 영역 간 통합이 된다. 여기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학습 요소는 ‘상황 맥락’이다.

(사)는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해 온 통합 지도가 주로 영역 간 통합이었음을 보여준다. (사)a~d는 통합의 대상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임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사)e는 영역마다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와 그렇지 않은 학습 요소가 있다고 하여 공통 학습 요소가 있을 경우 영역이 다른 교육 내용들 사이의 통합이 가능함을 말한다. (사)f도 공통 학습 요소를 매개로 하는 영역 간 통합을 포함하고 있다. (사)g, h에는 국어과 선택과목 사이의 통합이 언급되어 있다. 선택과목은 여섯 영역의 심화 학습을 의도한 것이므로 (사)g, h가 영역 간 통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g, h에는 통합의 범위가 듣기·말하기[화법], 읽기[독서], 쓰기[작문], 문법[문법], 문학[문학]의 전 영역을 아울러 나타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전에 없던 ‘고전’과의 통합 지도가 눈에 띈다. 고전은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신설 과목으로 다양한

17) 2007 개정 교육과정 9학년 읽기 성취기준 4번.

18) 2007 개정 교육과정 9학년 문법 성취기준 5번.

19) 2007 개정 교육과정 9학년 문학 성취기준 4번.

분야의 고전 읽기에 초점을 두고 토의, 토론, 논술 활동까지 의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을 두고 교육과정에서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통합적 성격을 떤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153)라고 밝힌 바와 같이 고전 과목에는 이미 국어과 전 영역에 걸친 영역 간 통합이 의도되어 있다.

국어과 내의 영역 간 통합은 통합이 주로 거론되는 언어 사용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과 언어 사용 영역과 그 외 영역의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o)

- a. 어린이의 언어 활동을 중시하고, 어린이의 언어 활동이 주체적으로 행하여지도록 할 것이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지도가 원칙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
- b. 말하기, 듣기, 읽기와 관련지어 지도한다. (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작문』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중)
- c. 국민 학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중점을 둔다. 또, 정확한 표기와 발음, 어휘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며, 표현과 이해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력 및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이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국어』 ‘1. 성격’ 중)
- d. 화법 지도는 ‘국어’ 과목의 ‘읽기’, ‘쓰기’ 활동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화법』 ‘4. 방법’ 중)
- e. 독서 지도는 말하기, 듣기, 쓰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도되어야 하며, 교수·학습에서는 글의 특성에 따른 알맞은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독서』 ‘4. 방법’ 중)
- f. 작문 지도의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활동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작문 연습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한다.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작

문》 ‘4. 방법’ 중)

- g. 독서 지도는 ‘화법’, ‘작문’ 과목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도해야 하며, 교수·학습에서는 글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수업 모형을 적용한다. (7차 교육과정 《독서》 ‘4. 교수·학습 방법’ 중)
- h. 듣기, 말하기, 읽기 활동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작문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한다. (7차 교육과정 《작문》 ‘4. 교수·학습 방법’ 중)
- i.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 ‘4. 교수·학습 방법’ 중)
- j. 화법과 작문의 공통부분을 다룬 ‘원리’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개별 영역에서는 구어 표현과 문어 표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5. 교수·학습 방법’ 중)

(아)는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이 언급된 교육과정 진술이다. 즉, 언어 사용 영역 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이의 통합이 언급된 진술이다. (아)를 보면,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을 가리키는 진술이 주로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인 (아)a, (아)c와 국민공통과목 교육과정인 (아)i를 제외하고 모두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에서 언급된 진술이다.

(아)b, (아)d~h, (아)j는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 진술이다. 이들을 보면, 화법, 독서, 작문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상호 관련’을 맺거나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0)</sup> 여기서 상호 관련이나 유기적 연계나 통합적 지도의 대상으로 문

20) 그런데 (아)g, (아)j를 제외하고는 심화과목 화법, 독서, 작문에서 상호 관련을 맺거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대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지목되어 있는 점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심화과목 화법, 독서, 작문의 통합 대상이 듣

법이나 문학 영역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sup>21)</sup> 언어 사용 영역의 심화과목에서 직접 지목되는 통합의 대상은 같은 언어 사용 영역이다.<sup>22)</sup> 이러한 사실은 언어 사용 영역의 경우 통합의 대상으로 같은 언어 사용 영역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언어 사용 영역에서 주로 같은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이 고려되는 것은 이들 영역이 지난 상호 동질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모두 언어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공유하는 의사 소통 행위이고, 고등 사고 기능으로서 의미 구성 과정이며, 인지적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아)e에서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이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도 이와 관계 있다.

## (자)

- a. 문학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 활동 및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 이해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차 교육과

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 것이다. 같은 심화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이 아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각각 화법, 독서, 작문과 교체되어 쓰이는 우리말 용어이기도 하지만, ‘국어’ 과목의 영역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하다. (아)d에서 말하듯이 ‘국어’ 과목의 활동인 것이다. 심화과목의 통합 대상으로서 국어 과목의 영역이 지목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통합 지도라고 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국어 과목은 심화과목에 앞서 이수 한다. 화법, 독서, 작문은 공통과목 국어를 이수한 후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심화과목이다. 이들은 선행 과목과 후행 과목의 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은 동일 충위의 내용과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타일러가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원리의 하나로 통일성을 제시할 때에도 이것을 수평적 조직 원리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심화과목과 선수과목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학교의 사정이나 학사 운영의 편리 때문에 국어 과목과 심화과목의 이수가 동 학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통합 지도가 가능하다. (아)b, d~f, h가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합 지도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통합 지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에 통합 교육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 21) (아)e와 (아)g에 ‘등’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법이나 문학을 지목한다기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부기된 감이 있다.
- 22) (아)j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이 편제상 한 과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양자의 지목은 당위적일 수밖에 없다.

정 『문학』 ‘4. 교수·학습 방법’ 중)

- b.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 ‘4. 교수·학습 방법’ 중)
- c. 문법 교육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과 통합하여 교수·학습될 수 있게 한다. 특히 문법 지식을 토대로 토론과 글쓰기 등의 표현 활동을 하면서 문법 능력을 함양해 가도록 지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4. 교수·학습 방법’ 중)
- d. 독서와 문법의 공통부분을 다룬 ‘본질’과 ‘실제와 자료’ 부분에서는 독서와 문법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개별 영역에서는 각각 구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독서 방법의 필요를 감안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5. 교수·학습 방법’ 중)
- e. 문학 활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언어 활동 및 매체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문학』 ‘5. 교수·학습 방법’ 중)

(자)는 언어 사용 영역과 그 외 영역의 통합 지도와 관련된다. (자)a에는 문학과 언어 사용 영역의 통합 지도가 나타나 있다. (자)e도 마찬가지이다. (자)a와 (자)e 모두 통합의 대상으로 언어 사용 영역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활동이나 매체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다. (자)b는 국민공통교육기간의 국어 과목에서 문법 및 문학 영역과 언어 사용 영역의 통합 지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담화나 글을 읽거나 들으면 읽기나 듣기와의 통합이 되고, 담화나 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면 쓰기나 말하기와의 통합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담화나 글의 내용이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되는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의 통합에 해당한다. (자)c는 문법과 언어 사용 영역의 통합 지도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통합은 문법 능력의 함양을 위한 것이며 특히 표현 영역과의 통합에 중심이 기울어진

편이다. (자)d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서와 문법이 불가피하게 한 과목으로 편성된 데 따른 진술이다. 여기서 독서와 문법의 통합은 독서의 자료로서 문법 관련 글을 읽는 수준에 가깝다. 이점은 (자)b에서와 비슷한데, 결국 독서와 문법의 통합이 기반이 약한 것임을 드러낸다.

(자)를 통해 볼 때, 문법과 문학 영역에서 고려하는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은 대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를 하게 하는 차원에 가깝다. 언어 사용 영역의 학습 목표가 문법이나 문학의 학습 목표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문학 학습 과정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가 동원되는 정도이다. 또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자료가 문법이나 문학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정도이다. 문법이나 문학 영역에서 고려하는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 교육은 실질적인 통합 교육이라 하기에는 이론 감이 많다. 문법이나 문학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은 대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목적화되지 못하고 문법이나 문학의 학습 경로나 반응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정도에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

### 3. 영역 내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통합 지도에는 국어과 여섯 영역의 개별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지도도 있다.

(차)

- a.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국어』 ‘4. 교수·학습 방법’ 중)
- b. 영역 간, 영역 내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국어』 ‘5. 교수·학습 방법’ 중)

- c.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2011 개정 교육과정 《국어 I》 《국어II》 ‘5. 교수·학습 방법’ 중)

(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동일 영역 내의 통합이 언급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신설과 관련된다. 내용 요소<sup>23)</sup>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 24). 내용 요소는 이전 교육과정인 7차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본질, 원리, 태도가 독립적·분절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되었다는 문제점 진단(교육인적자원부, 2008 : 11)을 배경으로 하여 신설된 틀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중점 사항을 일곱 가지<sup>24)</sup>로 밝혔는데 그 중 두 번째가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용 요소의 신설이 통합 지도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차)에는 통합 지도의 대상으로 내용 요소가 특정되어 있다. 내용 요소의 통합은 성취 기준의 통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내용 요소가 성취 기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a~c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일 영역 내 내용 요소의 통합은 사실상 동일 영역 내 성취 기준의 통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대상을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 활용하기’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 생성하기’를 함께 지도하는 경우 두 성취 기준이 함께 관련될 수밖에 없다. 전자는 7학년 말하기 성취 기

23) 본고에서 말하는 내용 요소(content elements)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내용 요소’를 의미한다.

24)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7.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교육인적자원부, 2008 : 11-14)

준(1)의 두 번째 내용 요소이고, 후자는 동일 영역 성취 기준(2)의 두 번째 내용 요소이다. 또,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주장 평가하기’, ‘글에 나타난 시대적·사회적 배경 파악하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글쓴이의 삶 이해하기’ 등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관련 성취 기준 세 개의 통합 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 8학년 읽기 영역의 내용 요소들인데, 각각 성취기준(2)의 세 번째 내용 요소, 성취 기준(2)의 두 번째 내용 요소, 성취 기준(4)의 세 번째 내용 요소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내용 요소는 모두 시대적 배경(상황)이라는 공통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통합 지도가 적절하다.

그런데 (차)a와 (차)b, c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만,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카)

- a.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 찾기
  - 글쓴이의 관점 파악하기
  -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파악하기
  - 글을 쓸 때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관점 평가하기

## b.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모든 글이나 매체에는 글쓴이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성향, 입장, 태도, 감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글에 제시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의견인지, 내용 선정에 편향성이 없는지, 적절하지 않은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지 등 필자의 의도가 글에 실현된 양상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또 글쓴이가 글을 쓸 당시의 여건, 사회·문화적 분위기 등의 맥락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에 대해 서로 토의하도록 한다.

(카)a와 (카)b는 성취 기준이 같다. 전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 기준<sup>25)</sup>이고, 후자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 기준<sup>26)</sup>이다. (카)a에는 내용 요소가 4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카)b에서는 그렇지 않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내용→성취 기준→내용 요소의 예’라는 틀을 취하지만, 2011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 내용→성취 기준→해설’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카)b에서 보다시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가 교육과정의 공식 틀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의 통합을 말하는 (차)b, c는 부담스런 진술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차원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 요소를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하려면 내용 요소를 추출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1차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국어과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어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논의된 바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해 필요성과 근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 일반적으로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국어과 교육의 내부 논리에 의해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고, 국어과 교육 외부의 일반 논리나 현실 여건에 의해 논의되기도 했다. 고찰 결과 이들 논의는 크게 국어과 특수적 성격을 지니

---

25) 6학년 읽기 1번.

26) 5~6학년군 읽기 5번.

는 것과 교과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었다. 국어과 특수적 성격을 지니는 논의로는 언어 사용의 실제, 언어의 도구성,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교과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논의로는 유기체의 생물적 특성, 학습자의 발달심리적 특성, 학습의 효율성, 교육의 실세계 대응력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속한다. 국어과 특수적 성격을 지니는 논의 중 언어 사용의 실제나 언어의 도구성을 근거로 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국어과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비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통합 교육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쪽에 있었다.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한 명시화가 일부 영역으로 좁혀져 있지만, 그 근거는 언어 사용의 실제에 두고 있어 1차, 2차 교육과정에서 맥을 잊고 있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가 상세화되고, 다방면에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이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통합의 근거가 학습의 효율성, 인지 과정, 사용 매체, 언어의 도구성으로 다변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의 총체성을 고려한 언어 사용의 실제를 근간으로 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접근하고 있는 통합 교육에 대한 관점도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합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가리키는 교과 간 통합, 국어과 내에서 영역과 영역의 통합에 해당하는 영역 간 통합, 개별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역 내 통합으로 접근하였다.

교과 간 통합 교육에 대한 강조는 주로 초창기 국어과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 통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 나타나 있었는데, 통합의 범위가 교과와 교과 뿐 아니라 교과와 비교과로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국어과의 성격을 범교과적 도구 교과로 파악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었다. 1차, 2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간 통합은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에서 두루 강조되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도 1차, 2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다. 국어과의 통합 지도를 다른 교과와의 통합, 비교과 활동과의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도 동일하였고 국어과 교육의 범교과적 성격을 인식한 점에서도 동일하였다.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국어과와 다른 교과와의 통합 지도에 대한 언급이 교육과정 문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해 온 통합 교육은 주로 영역 간 통합이었다. 대개 통합의 대상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영역임을 직접 드러내고 있었다. 영역 간 통합은 언어 사용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과 언어 사용 영역과 그 외 영역의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은 주로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영역의 심화과목에서 직접 지목되는 통합의 대상은 대부분 같은 언어 사용 영역이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 사용 영역의 상호 동질성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법과 문학 영역에서 접근하는 언어 사용 영역과의 통합은 대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행위를 동원하는 정도이거나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자료가 문법이나 문학에 관한 내용인 정도에 그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문법이나 문학의 학습 경로나 반응 수단에 불과하였다

교육과정 차원에서 언급된 영역 내 통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요소’ 신설과 관련되어 있었다. 내용 요소의 신설에는 내용 요소를 통한 교육 내용의 독립적·분절적 접근을 극복해 보자는 교육과정의 통합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다. 내용 요소가 성취 기준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요소의 통

합은 성취 기준의 통합과 긴밀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가 교육과정의 틀로 존재하지 않아서 내용 요소를 대상으로 통합 교육을 하려면 내용 요소를 추출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합 교육의 전반적인 윤곽은 이상과 같다. 교육과정에서 보인 통합 교육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원칙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나 현장 교실 차원에서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교과서와 교수학습 현장을 통어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교과서나 현장 교실도 교육과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 수만은 없다.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강하게든 약하게든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보여 온 통합의 정신은 그동안 국어 교과서나 국어 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부언하자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과 통합 교육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교육과정으로 말미암아 국어과 교육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과목이 현장에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이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쳐질 것이고, 상상조차 어려운 독서와 문법이 하나의 간판을 달고 가르쳐질 것이다.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의 태생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들의 통합은 출발부터 이미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은 불분명하고 내적 기반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기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과목은 편제화되었고 교육과정은 고시되었다.

이들 과목이 도입되면 아마도 국어 교실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 것이다. 예상치 못한 면에서 거두는 소기의 성과도 없지 않을 것이고, 예상했던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보여 온 통합의 정신이 현장에서 빚어내는 변화와 변용을 기대하고 문제의 초점을 교육적 효율성에 맞추어야 할 때일지 모른다.\*

---

\* 본 논문은 2011. 6. 30. 투고되었으며, 2011.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11.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2011 개정 교육과정 개발팀(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 자료집』(2011.07.09).
- 고춘화(2008),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31집, 국어교육학회.
- 교육부(1992),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 교육과학기술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 교육과학기술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해설(Ⅱ) 국어』, 대한교과서(주).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1-361호.
- 교육인적자원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
- 김명순(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 연구』 11호, 한국독서학회.
- 김주환(2010),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성 연구”, 『새국어교육』 8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문교부(1955), 『국어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4호.
- 문교부(1963), 『국어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19호.
- 문교부(1973), 『국어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10호.
- 문교부(1981), 『국어과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42호.
- 문교부(1987), 『국어과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9호.
- 신현재·이재승 편(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박태경(2006), 『나는 비빔밥 인간을 만들고 싶다』, 뷰스.
- 방민호 외(2010), 『중학교 국어 1-1』, 지학사.
- 우한용 외(2010), 『중학교 국어 1-2』, 두산동아.
- 이관규(2009), “고교 국어 선택과목 교육과정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고교 국어 선택과목 교육과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 토론회 자료집』(2009. 9.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영덕(1983),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한국교육개발원 편,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이영만(2001), 『통합교육과정』, 학지사.
- 천경록(2009),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 개발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39집, 한국초등국어학회.
- 함종규(2003),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교육과학사.
- Caine, R. & Caine, G. (1991), *Making Connections : Teaching and the human brain*, VA :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 Dewey, J.(1933), *How we think*, NY : C. C. Heath.
- Dewey, J.(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Y : Macmillan.
- Frazee, B. M. & Rudnitski, R. A.(1995), *Integrated teaching methods : Theory, classroom applications, and field-based connections*, NY : Delmar Publishers.
- Fredericks, A. D., Blake-Kline, B., & Kristo, J. V.(1997), *Teaching the integrated language arts*, NY : Longman.
- Tchudi, S. & Mitchell, D.(eds.)(1999), *Exploring and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N Y : Longman.
- Whitehead, A. N.(1929),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Y : Macmillan.

## &lt;초록&gt;

##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고려 양상

김명순

본고에서는 1차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에 걸쳐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의 접근 양상을 살폈다.

국어과 교육 일반적으로 통합 교육의 필요성은 언어 사용의 실제, 언어의 도구성, 국어과 교육의 현실 여건, 유기체의 생물적 특성, 학습자의 발달심리적 특성, 학습의 효율성, 교육의 실세계 대응력과 관련되는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 교육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언어 사용의 실제에서 찾고 있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도 1차, 2차 교육과정의 맥을 잇고 있었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국어과의 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가 상세화되고 통합 교육의 근거가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의 종체성을 근간으로 하여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이점은 가장 최근의 2011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합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과 간 통합 지도에 대한 강조는 주로 초창기 국어과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 통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도 기본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다.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말해 온 주요 통합 지도는 영역 간 통합 지도였다. 영역 간 통합은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과 언어 사용 영역과 그 외 영역의 통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영역 사이의 통합은 주로 고등학교 심화과목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영역 내 통합의 언급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요소’ 신설과 관련되어 있다. 영역 내 통합의 정신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어】** 통합 교육, 국어과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 교과 간 통합, 영역 간 통합, 영역 내 통합

<Abstract>

**Integrated Approach to Literacy Instruction  
Presented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Kim, Myoung-so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pect of integrated approach to literacy instruction which was presented from the 1st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s a results, a few aspects related integrated approach to literacy instruction were discovered such as followings.

Basically, it was revealed the position that recogni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approach and recommend the use of it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rom the 1st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the 3r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necessity of integrated approach was emphasized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activities of use language. In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various bases for the necessity of integrated approach was presented. But in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putting a stress on the totality of the activities of use language was the common with the previous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subjects was mainly showed in the 1st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2n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fter the 4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fields was placed emphasis on. It was classified integrated instruction between the fields. One is integrating speaking and writing and listening and reading, and the other is integrating the fields of

grammar and literature and those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he first has a tendency to appear in the elective curriculum in the high school. Integrated approach in the same field was introduced in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he 2011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is was related to newly-established the contents elements in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is study will provide valuable aid for those who are in search of information about the integrated approach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Key words】** Integrated approach,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Necessity of integrated approach,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subjects,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fields, Integrated approach in the same field